

중학생부	평가영역별 예시문제 보기
------	---------------

[사실적 이해 능력]

1. 카뮈신과 비올레트 할머니를 중심으로 책 내용을 바르게 정리하지 못한 것은?
- ① 카뮈신은 요양원에 출근한 첫날부터 비올레트 할머니가 집에 두고 온 껌딱지 때문에 계속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껌딱지를 찾아가 보기로 약속한다.
 - ② 카뮈신에게 껌딱지가 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비올레트 할머니는 카뮈신과 한 약속대로 식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간다.
 - ③ 카뮈신은 사육제 행사를 위해 가장 행렬 의상을 준비하다가 비올레트 할머니에게 68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요양원 사람들과 함께 요양원의 문제를 알리는 시위를 계획한다.
 - ④ 카뮈신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엄마 아빠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가슴속 이야기를 비올레트 할머니에게 털어놓게 되고 할머니는 사람마다 가진 진실이 다를 수도 있다고 얘기한다.
 - ⑤ 색전술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비올레트 할머니를 위해 카뮈신이 깜짝 선물로 준비한 껌딱지가 할머니와 함께 요양원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고, 카뮈신은 꿈에서 엄마를 만나 화해한다.

[추론적 이해 능력]

2. ㉠에 들어갈 대담으로 알맞은 것은?

기자: 로저 태니가 주도한 드레드 스코트 판결을 가리켜 ‘연방대법원이 스스로에게 가한 자해 행위’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셨는데요, 이유가 무엇인가요?
 휴즈: (㉠)

- ①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 9명의 대법관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린 꼴이 되었으니까요.
- ② 그 당시는 옳은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흑인 노예를 인간이라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.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권에 대한 개념도 변했으니까요.
- ③ 사람이 하는 판결이라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. 좀 더 꼼꼼히 법률 문구를 해석하고 소수 의견도 귀담아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.
- ④ 대법관이 자기가 가진 취향에 따라 판결했기 때문이에요. 저는 로저 태니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만약 제가 그 재판을 맡았더라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을 테니까요.
- ⑤ 흑인은 시민 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판결했기 때문이에요. 결과적으로 법률 문구 해석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연방대법원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한 꼴이 되었으니까요.

[어휘 능력]

3. ㉠~㉣의 뜻풀이가 바르지 않은 것은?

- 일이 6시 30분에 시작되면 절대 ㉠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.
- 영혼이 ㉡조우한 듯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져 있었다.
- 사고 직후 나는 이틀 동안 ㉢코만 상태였다.
- 역시 카뮈신은 내 말의 ㉣행간을 읽을 줄 알았다.
- 노인들은 옆에 앉아 ㉤훈수를 두기도 하면서 수다를 떨었다.

- ① ㉠: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함
- ② ㉡: 서로 반갑게 맞이함
- ③ ㉢: 의식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는 일
- ④ ㉣: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통해 나타내려는 진짜 뜻
- ⑤ ㉤: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듯이 말함

[비판적 이해 능력]

4.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쓸 때,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㉠ ‘Deux Fleurs En Hiver(겨울의 두 꽃)’라는 원제에서 알 수 있듯 꽃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추운 겨울에 만나 꽃피운 우정 이야기이다.
- ㉡ 불투명한 미래와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고등학생 카뮈신과 요양원에 입소한 자신을 초라하고 힘없는 늙은이라 여기는 비올레트 할머니가 번갈아 가며 이야기를 끌어간다.
- ㉢ 이야기 중간에 비올레트 할머니가 처한 상황과 할머니의 심정을 대변하는 하이쿠가 실려 있어 이국적인 멋과 함께 상징적이고 절제된 시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.
- ㉣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10대 청소년과 자신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려는 할머니가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다.
- ㉤ 요양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원의 노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시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 성공한 모습을 통해 나이 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보여 준다.

- ① ㉠, ㉡, ㉢
- ② ㉠, ㉡, ㉣
- ③ ㉠, ㉢, ㉣
- ④ ㉡, ㉢, ㉣
- ⑤ ㉢, ㉣, ㉤

[통합 사고 능력]

5. [가]의 카뮈신이 [나]를 참고하여 돌아가신 비올레트 할머니에 대한 마음을 하이쿠로 표현했다고 가정했을 때, 적절한 것은?

<p>[가] “고양이, 귀엽네요.” 그리고 내가 사진에 베껴 놓은 시를 천천히 읽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는 가도 고양이는 남는다 내 무릎 위에.</p> <p>“하이쿠라는 일본 시야.” 아이(카뮈신)는 시에 완전히 빠진 듯 낮이 나갔다. - 《오늘부터 돌봐 드립니다》 -</p>
<p>[나] 하이쿠는 일본 시 문학의 일종으로, 각 행은 5, 7, 5음으로 모두 17음절로 이루어진다. 일반적인 하이쿠는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인 키고를 가지며, 하이쿠를 짓는 사람은 하이진이라고 부른다. 영어 등 일본어가 아닌 언어에 의한 3행시도 하이쿠로 불리는데, 일본어 이외의 하이쿠에서는 5, 7, 5음절의 제약이 없으며, 계절을 나타내는 키고도 없는 경우가 많다. - <네이버 지식백과>, 재구성 -</p>

①	보름달 아래 할머니와 함께했던 추억 그리워
②	세월이 가도 할머니의 목소리 맘속에 있네
③	제비꽃 피면 할머니가 떠올라 열병을 앓네
④	그르릉대는 껌딱지 품에 안고 하루를 사네
⑤	비 오는 밤 서럽게 불러 보는 할머니 이름